

# 韓國住宅과 住居生活

## (Ⅱ)

張起仁  
(三成建築代表)

### (5) 후당(後堂)

안채의 뒷뜰 언덕위 일단 높은 자리에 방과 마루방이 달린 별당(別堂)을 짓는다. 이곳은 묘령이 된 규수가 거처하는 곳으로서 유교적 여인의 교양과 부덕을 익히며 후일을 기약하는 재원의 별실이다. 또 도령님의 한적한 공부방으로도 쓰이며 노인들이 한때를 즐기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주위는 화초에 둘러 싸이고 고요하기 이룰데 없는 곳이다.

### (6) 측각(廁間) · 협문(狹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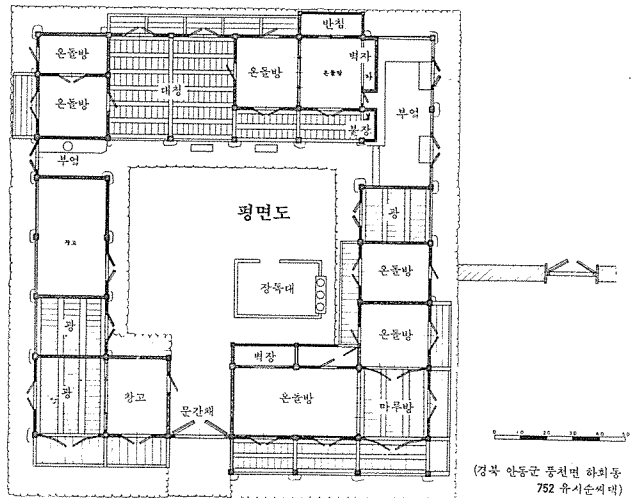
농촌의 측간은 따로 떨어져 있게 배치하거나 헛간이나 외양간 옆에 두는 것이 보통이다. 짚이나 콩대 · 수수대 등을 땀 재를 두는 잣간의 일부에 두기도 한다. 주거 건물과 별채로 하는 것은 방이나, 강우시에는 불편하나 내음새의 처리상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도시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따로 분리되는 위치 현관이나 광 또는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실의 옆에 두고 또 벽장이나 반침으로 주거실과는 격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모니아가스의 발생은 햇볕을 잘 받을수록 비교적 많게 되므로 북 또는 동북쪽에 두는 것이 좋고, 다음 서북쪽에 두는 것이다. 농촌의 잣간에 측간을 설치하는 일은 가스의 발생을 저지하게 되어 악취도 나지 아니하는 잇점이 있다.

도시의 집중식 평면일 때의 주거측간은 현관·계단실·홀·목욕실·광등의 옆에 두어 냄새를 덜 맡게 하는 배치법이 좋고 오물조(汚物槽)는 될 수 있는대로 크게 만드는 것이 가스발생이 저지된다. 대변소 1칸의 크기의 오물조에 비하면 그 크기를 3배~5배로 확대하면 큰 만큼 냄새는 저지되는 것이다.

협문은 셋갓문 또는 옆문 · 출입문 등으로 불리우기도 하나, 건물과 건물 또는 담장으로 둘러진 사이에 두어 출입에 편하게 하고 또 내부와 외부를 일단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출입 인원이 제한되거나 특정 인원만 출입하는 경우도 있어 장식적 주로 하여 설치할 때도 있다. 보통 부연을 수평으로 걸은 일각(一角大門), 상부를 원형으로 한 홍예일각문 또는 화초담에 낸 홍예문 또는 원형문등의 의장으로 건물과 마당의 내외부를 운치있게 차단하여 출입인원의 즐거움을 주는 묘미가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 (7) 주가의 평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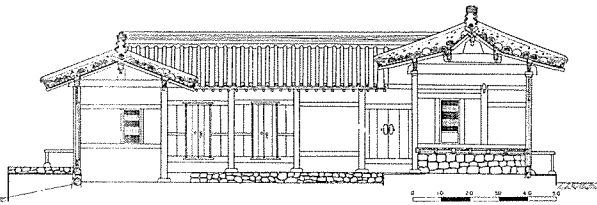
상기와 같이 한국주택의 평면형은 一자집에서 二자집, ㄱ자집, ㄷ자집, ㅁ자집으로 구성되고 또 그 외곽에 행랑각이 ㄱ자 또는 ㄷ자형으로 둘러진다. ㄱ자 · ㄷ자 ㅁ자형으로 배치하더라도 一자형으로 따로 떼어 배치하는 법과 지붕을 붙여서 꺾어 지을 때도 있다. 그 대표적인 한 예는 경북 안동지방이나 경주지방의 민가는 ㅁ자로 붙여서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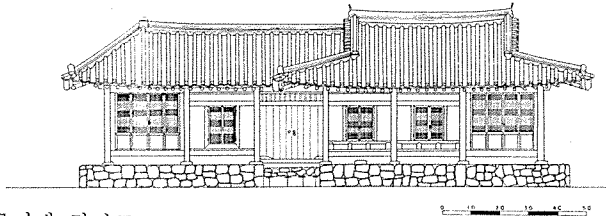
(그림 1-1) 안동지방인 민가평면

다음 그림은 서울 도시형 주택으로서 건립 연대는 1930년대이나 짜임새 있는 소주택 평면도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구식이나 일본식 주거생활이나 주택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아니하고 전래된 한국주택을 그대로 전승하여 평면계획이나 구조공법에 이르기까지 전혀 한국인의 손으로 꾸며진 것이다. 이때까지 일인들은 한국인의 주생활에까지 개입할 의사도 정책도 쓰지 아니하였으므로 불행중 다행한 일이다. 이 주택 평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채에 ㄷ자로 꺾이어 부엌이 있고 또 꺾이어 사랑방을 두었는데 사랑방의 출입은 대문간과 별도로 출입할 수 있게 협문(狹門)을 내고 또 사랑방 앞에는 뒷마루를 두고 그 앞에는 작은 화단을 구성하여 몇 그루 안되지만 애완 관상수나, 기암괴석 또는 정원석을 배치하여 운치있게 하였다. 이들 평면형을 분류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7종으로 대

별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수 간살잡기 법이 있으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건립 당시의 의도와 달리 후일에 추가되는 것도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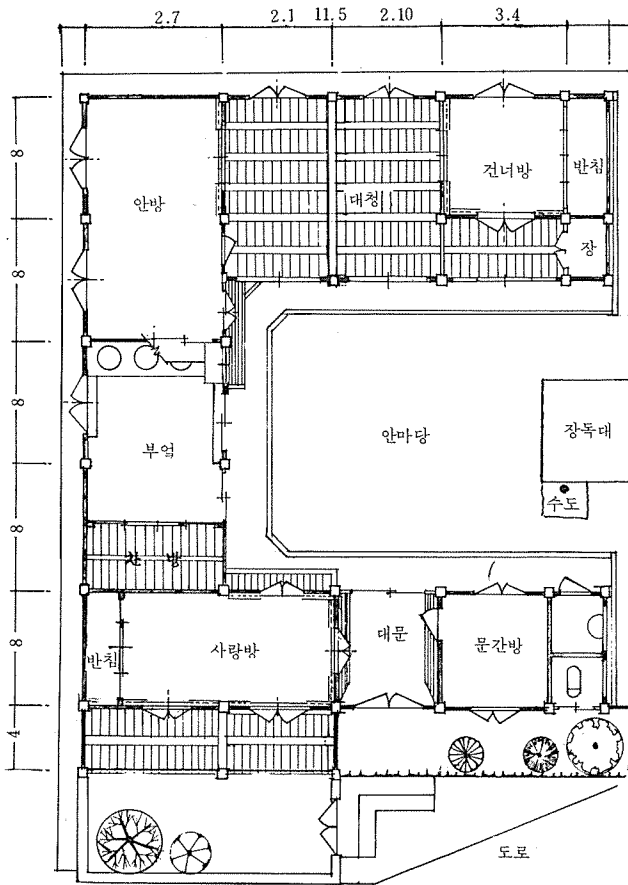


안채 종단면도 및 입면도



문간채 정면도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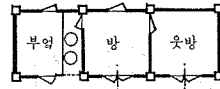


(그림 2) 도시형 소주택 (성북동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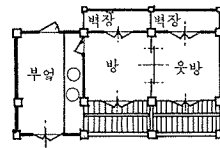
제 1호는 방 2 간에 부엌 1 간이 달린 一자형으로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된다. 1호 - 2는 방 2 간 앞에 뒷간을 마루로 꾸민 것이다.

평면 2호는 방과 방사이에 마루방이 있고 방앞에 부엌 1간이 달린 것으로서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 일원 및 남한 일대에 널리 쓰인 것이다. 2호 - 2는 방에 뒷간과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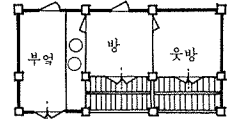
평면 1호 3간 1자집 (5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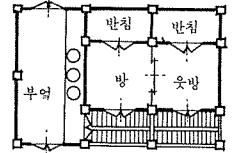
1.1 3간집



1.3 전외 벽장 3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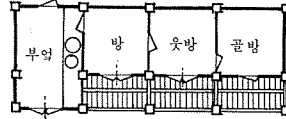


1.2 전외 3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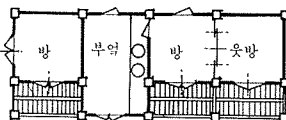


1.4 전후외 3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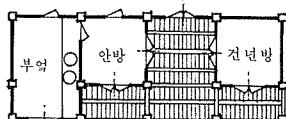
평면 2호 4간 1자집 (7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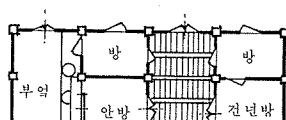
2.1 전외 4간집 (방 3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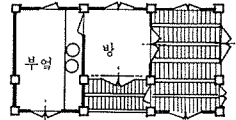
2.2 전외 4간집 (부엌좌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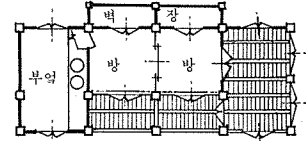
2.3 전외 마루좌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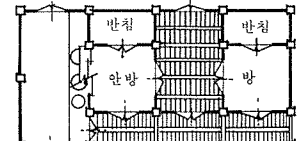
2.6 후외방 4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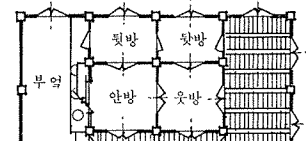
1.5 방·마루 3간집



2.4 전외 후벽장 4간집



2.5 전후외 마루방좌우방



2.7 전후외 4간집 (후외방)

(그림 3-1) 한국 주택의 평면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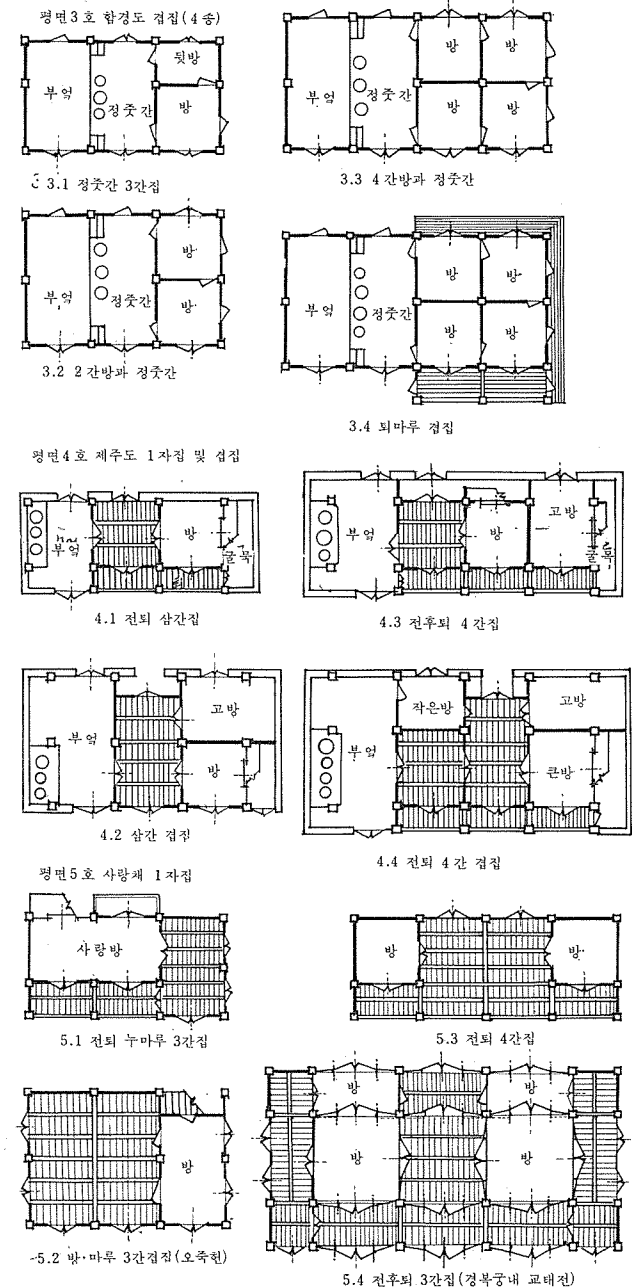
엿에 찬방등을 늘린 것이며 필요에 따라 뜰 아랫방을 더 달기도 한다. 이것은 안방을 크게 하고 3간 대청마루에 비례하여 부엌과 방을 늘리는 형식을 말해주고 있다.

평면 3호는 양통집 (겹집) 형식의 것으로 부엌에 정춧간만이 달렸다가 방을 증설하고 또 부엌과 정춧간을 크게 늘리고 있는 형식이다. 이것은 주로 함경도 지방에 널리 쓰인 평면형이다. 3호 - 2는 겹집에 뒷간을 다른 것이나 정춧간과 부엌을 늘리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한냉지방의 정춧간의 효율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간살잡기의 방법이다. 겹집에도 방의 성격과 정춧간 부엌의 확대 방법과 또 부속건물의 배치등에 대하여 변화가 많은 평면이 된다.

평면 4호는 제주도 지방의 평면형으로서 마루방이 주실이며 온돌을 놓는다 하여도 부엌 한구석 또는 마루방 옆에 두는 형식으로서 부뚜막과 온돌방의 불아궁을 공용하지 아니하는 형식의 평면이다. 불아궁과 가마솥의 부뚜막을 공용하지 아니하는 이유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불아궁에 불을 지피는 일은 온난지방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의 불때는 것이 불필요하고 또 불이 내게 되면 취사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분리한 것이다. 온돌방을 꾸몄어도 그 불아궁은 따로 헛간부엌을 두는 일은 다른 지방의 벽장밀이나 헛간부엌을 꾸미는 함실온돌과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평면 4호-1은 온돌방은 마루옆에 부엌과 분리되어 배치된 것이며 4호-2는 부엌옆 마루 1칸 뒤에 온돌방을 꾸몄으며 부뚜막은 따로 설치하는 형식의 평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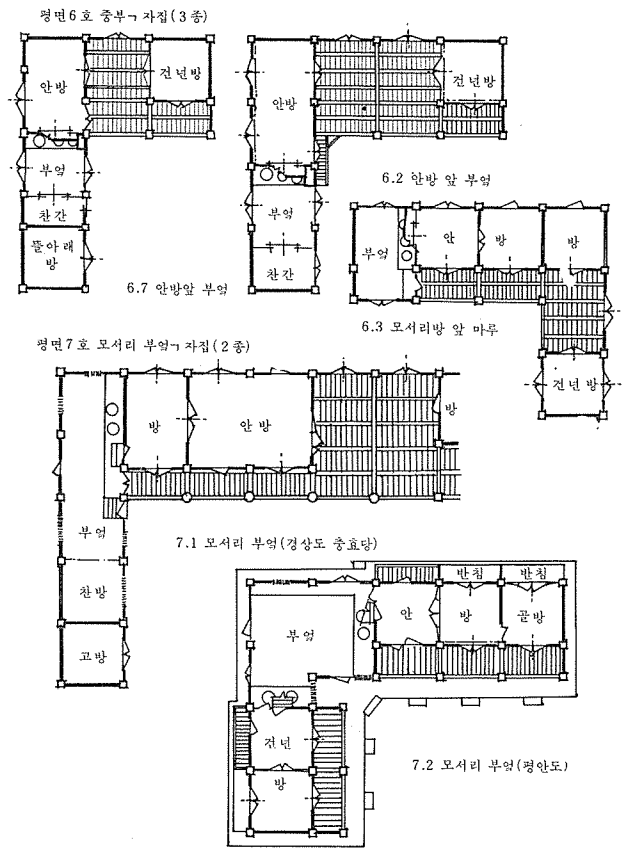


(그림 3-2) 한국주택의 평면형 (2)

평면 5호는 방옆에 부엌이 붙고 꺾이어서 방을 두거나 찬방등을 마련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서울 도시형이 안방의 앞쪽에 부엌을 두고 찬마루 및 뜰아랫방등을 두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평면 5호-1은 평북지방의 일반적인

형식이고 5호-2는 경북 안동군 충효당·양진당의 부엌과 안방의 배치법을 보인 것이다. 부엌의 위치에 주의하면 이 간살잡기의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평면 6호는 두칸방에 부엌이 달리거나 방과 마루 두칸방에 부엌이 달리고 한칸방을 늘린 형식이다. 6호-1은 부엌 옆에 방을 1칸 따로 달아 지은 것이다. 6호-2는 방과 방사이에 마루방을 둔 정면 4칸집의 형식이다. 6-3은 방 3칸을 나란히 배치한 평면이다. 이와 같이 하여 방 새칸을 구성하는 평형이다.



(그림 3-3) 한국주택의 평면형 (3)

평면 7호는 부엌은 없이 방과 마루방을 배치한 것이며 불아궁은 한테(外部)에 두거나 처마밑 벽장을 달아 짓고 그 밑에 불아궁을 함실아궁으로 하는 예이다. 7호-1은 방 앞의 뒷마루 밑에서 불을 때게 하거나 좌우 측면에 불아궁을 두는 예이다. 이것은 사랑방등의 용도에 쓰이는 평면이다. 7호-2는 강릉 오죽헌(烏竹軒)의 예이고 4칸 대청마루에 두칸 온돌방을 두고 뒷면에 반칸 벽장을 꾸미고 그 밑을 불아궁 헛간부엌으로 구성한 예이다. 7호-3은 방 두칸 사이에 마루방을 두고 전후좌우에 넓은 틈간을 돌렸으며 방의 뒷 틈간은 온돌방으로 하고 나머지 틈간은 복도 또는 반침으로 이용한 것으로 사랑채에 쓰이는 예가 많다.그림은 서울 경복궁에 있었던 교태전(交泰殿)의 평면형이다. 뒷퇴의 작은 온돌방은 시중드는 여비의 대기실로 쓰이었거나 준비실로 쓰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9. 근래 개량주택

한국주택이 분양을 위하여 건축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30년대이다. 이때까지는 건축주 자신의 자기집을 지었을 따름이지만 점차 지어 팔기 위한 주택이 건설되었다. 1930년대의 한옥을 다루던 분 중에 기억에 남는 이는 학우 정용식선생(전 대전공전교장)의 부친 정세권씨와 학우 김동수, 또 오공무소를 경영하시던 오영섭씨 등이었다. 그 후 한옥을 다루는 건설회사는 필자가 재직하던 조선공영주식회사와 동경건물회사(당시 김희춘선생께서 근무한 기억이 있으나 분명치 않다)와 또 경춘철도 용지과에서 대대적으로 한옥을 지어 분양하였다. 설계사무소로서는 최고 선배이신 박길용선생이고 기타는 각 건설회사 자체 설계로 한옥을 건설하였다.

한옥을 설계하면서 개량해야 할 문제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것이 변소와 목욕실의 위치, 다음은 온돌방의 불아궁 위치이며 또한 각실을 신진지 않고 왕래할 수 있도록 복도로 연결되거나 또는 각 방의 집중적 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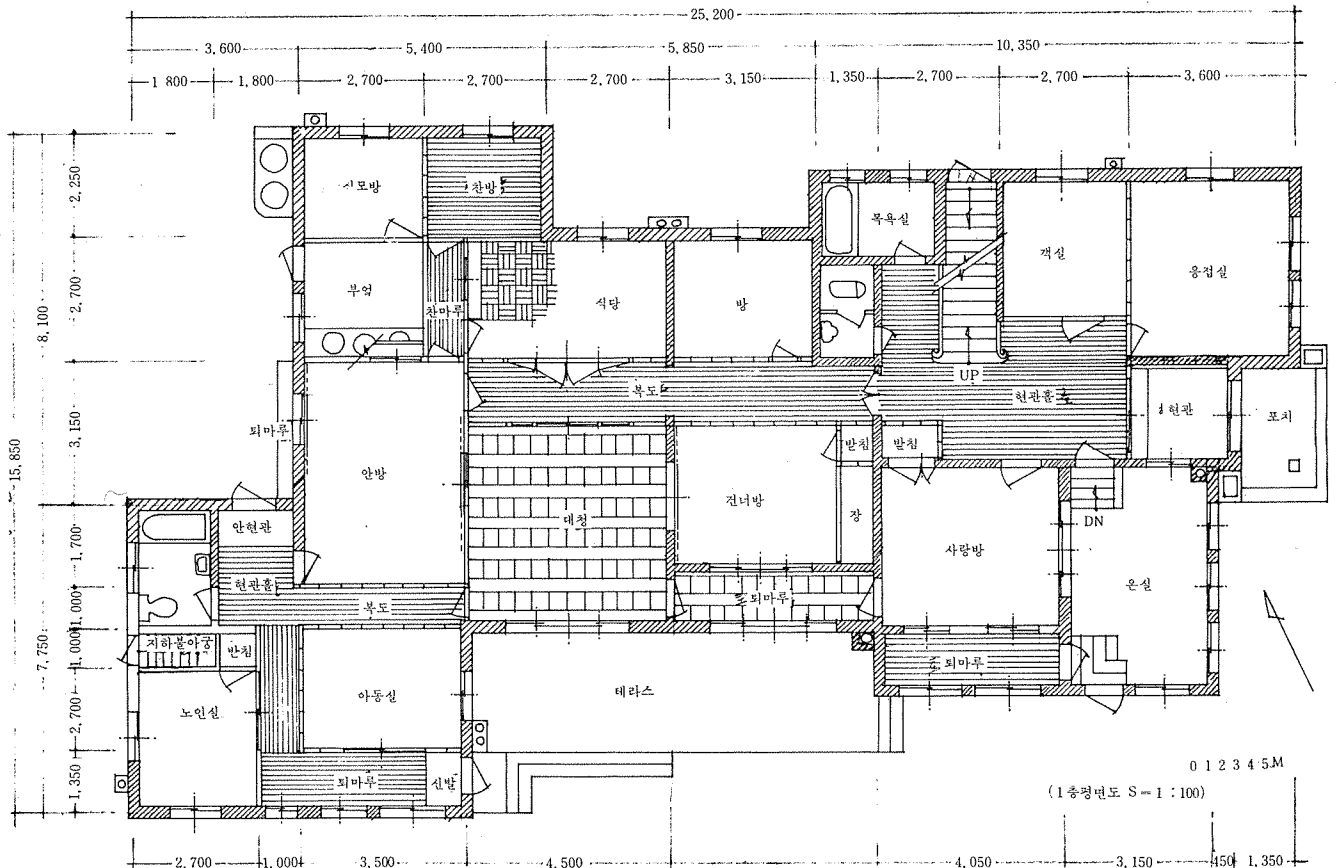
한옥에서 변소는 떨어져 별동으로 짓기 때문에 굵은 날, 추운 겨울은 그곳에 가는 일이 고통스러웠고, 20칸 이상의 중류 주택에서는 목욕실의 도입이 요망되었다. 각 온돌방은 부엌에 달린 온돌방 외에는 제각기 위치에 따라 헛간부엌을 두어야 하지만 도시의 소주택에서는 그럴 수만 없으므로 벽장밑을 헛간부엌으로 쓰거나 지단(地壇·基

壇)에 한테불아궁 즉 함실아궁으로 하였다. 이것 또한 바람부는 날이나 일기가 불순한 때이면 이 방 저 방 불 때는 일도 괴로운 일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량주택 평면은 점차 집중식 또 점집식 평면이 구상되고 현관(문간)과 현관마루(문간마루)가 일본 가옥의 유리성을 본받아 이들을 배치하고 변소는 기거하는 온돌방과는 거리가 있게 하고저 하니 변소의 배치는 현관·목욕실·반침·벽장·광등으로 온돌방과 격리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변소는 현관 옆에 배치하고 각 방은 속복도(골복도)로 연결하거나 대청마루에서 출입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실을 복도로 연결하는 배치법과 또 골복도의 좌우에 방을 배치하는 것이 착안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된다.

#### (1) 집중식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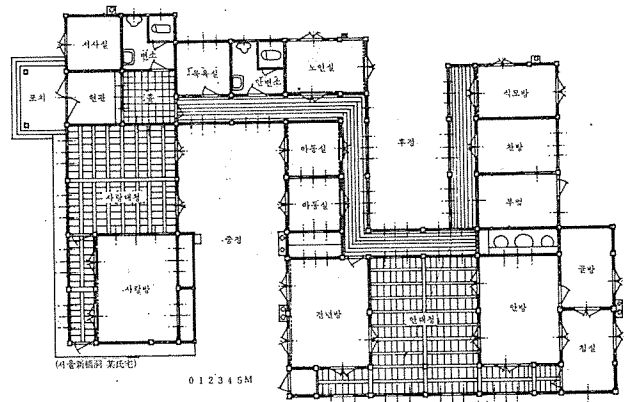
한옥의 각 실을 ㄱ자·ㄷ자·ㄹ자로 안마당을 두고 그 주위에 배치될 때는 동선이 길어지고 보다 편리한 주생활이 되도록 점집형식과 집중형식이 고안되는 것은 당연하나 당시의 대가족 생활제도 하에서는 고부간의 문제·남녀구별하는 내외문제등이 새롭게 문제가 되어 일부는 집중식 일부는 재래식으로 전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 그림 신고동 모씨택(박길용작). 1938년 조선과건축지에서 전사)이다.이것은 안채와 사랑채를 ㄱ자형으로 구성하되 모두 복도로 연결시키고, 문간(현관)과 변소 목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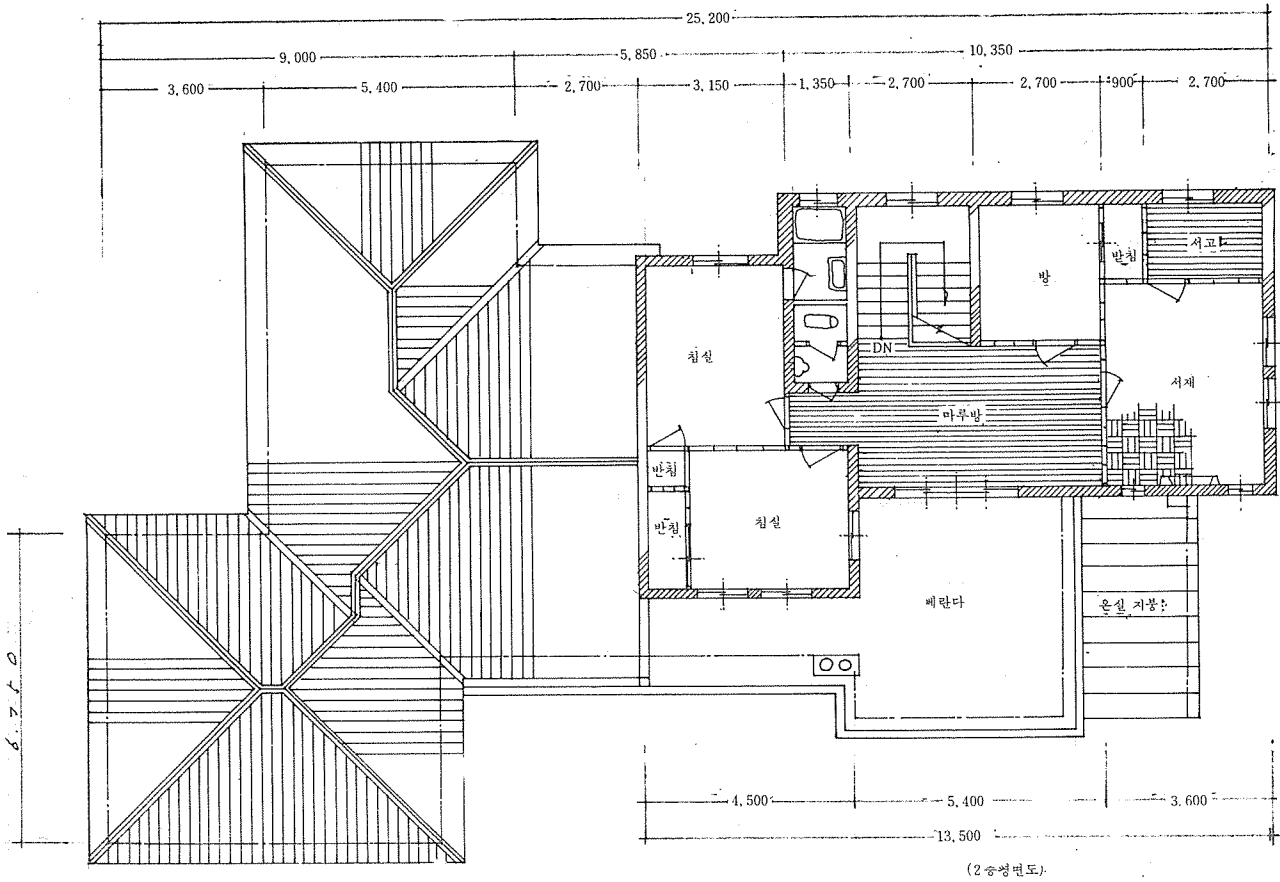
(그림5·1) 개량주택 1층 평면도 (1940년시안)

등을 두었다. 그림은 필자가 당시에 설계안의 하나이다. 단, 목조가 아니고 양식풍의 벽돌조의 외관과 내부 간막이·바닥·지붕틀등은 목조로 현대로 이어지는 평면형과 구조방식을 보인 것이다.

또 이 평면에서는 각 실의 불아궁을 지하실에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이 평면형은 안방과 부엌 그리고 대청마루를 중심으로한 안채와 현관·응접실·사랑방을 중심으로 한 사랑채가 집중적으로 접속되고 그 사이에 문을 달아 격리시키고 있다. 이 평면은 대주택의 한 예이지만 한국주택이 현대화된 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개량주택평면도 (1938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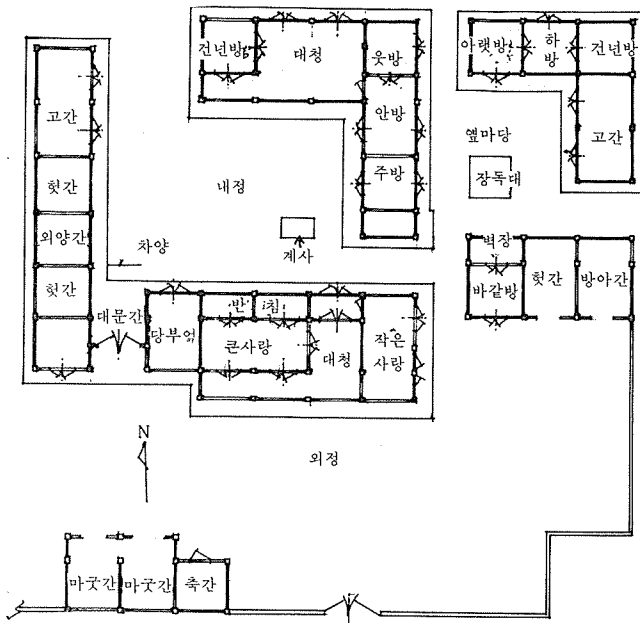
(그림5·2) 개량주택 2층평면도

### (2) 구한말 및 일정초기 평면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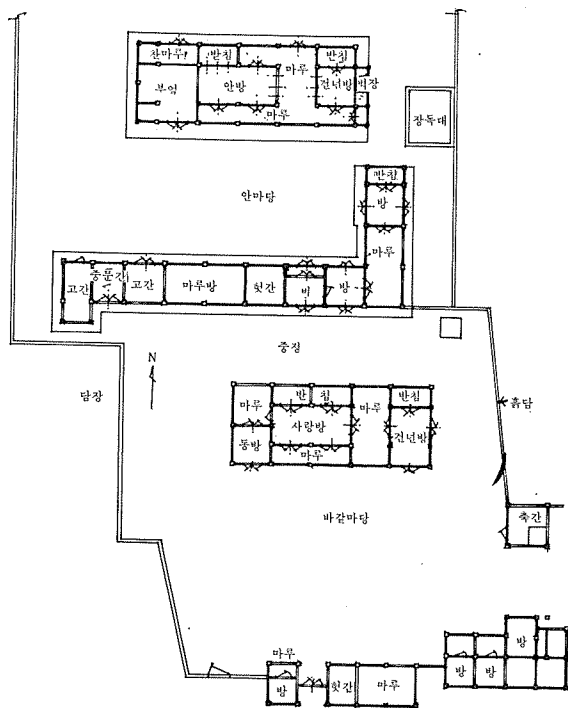
구한말 이후 일정초기까지는 전통적 한옥 평면이 계승되어 왔으며 도시의 신생활체제에 맞는 상인 시전(市廛)의 점포건축도 주택의 행길과 사랑채를 점포로 꾸미는 일과 상품의 저장고를 확충하는 일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사대부가에서 거상(巨商)의 경제로 압도되면서 시전의 민가가 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 그림의 평면도 2종은 한옥과 그 역사(신영훈 저)에서 전사한 것으로 조선조시대의 살림집이다. 필자가 경험한바로는 평면도에 기입되는 각 실의 명칭이 한문자로 하여서는 발음이 달라지고 또 상용되지 아

니하는 한문자는 어렵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평면도에 나타난 용어는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안방을 內室 또 內房으로, 마루를 桂樓로 표현하였으며 건너방을 越房, 아랫방과 윗방을 下房·上房등으로 표기하고 작은 방 작은 사랑방등을 小房·小舍廊이라 하였다. 더욱이 장독대는 醬甕臺라 하였으며 廚房·厨舍·饌房·饌抹樓等은 한문자를 읽히는데 어리둥절 하던 것이 생각난다. 여기에 보인 평면도는 구한말 이후의 평면기록인 듯하며 특히 동방(洞房)·규방(閨房)등은 건물 깊숙히 있는 방으로서 부인의 기거하는 방이다. 동방화촉(洞房花燭)이란 말이 있듯이 등불이 휘황할뿐 아니라 그 실내꾸밈새는

더욱 아랫다웠을 것이다.



(그림6·1) 구한말 주택평면도(한옥과 그 역사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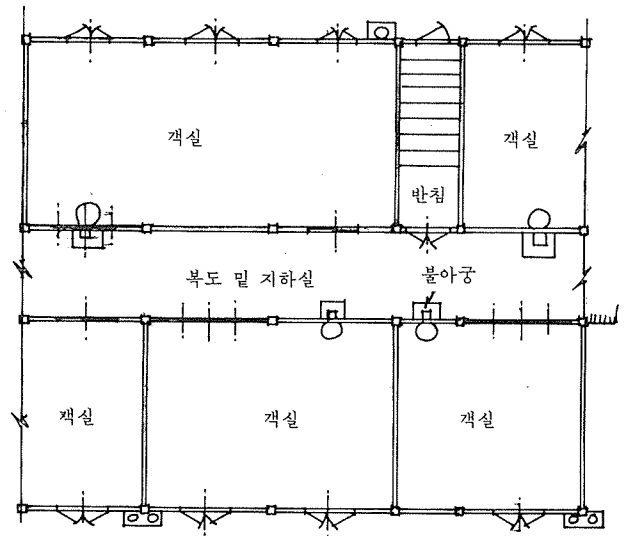
(그림6·2) 구한말 주택평면도(한옥과 그 역사중에서)

(3) 지하실 불아궁

가족이 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기반이 잡히고 아울러 방도 여러칸을 쓰게 된다. 방에 불을 때는 일은 하인배가 하는 일이지만 도시 서민주택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며 또한 근대화 되면서 노복의 계급도 없어지니 불 때는 일도 간편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옛 명월관의 큰 온돌방이나 불사(佛寺)의 요사채(寮舍軒)의 큰 방(大房—大溫突房)은 그 칸수가 10~20여칸이 되므로 불아궁을 한곳에

모아 두거나 두군데 이상 두기도 하였다. 여기에 묘안을 낸 것이 박길용선생의 지하실을 꾸미고 거기서 불을 때게 하는 것이 착안되어 한동안 지하실이 아니라 불아궁을 위한 지하실을 꾸렸다. 그림 7은 객실 여럿을축복도로 연결하고 복도밑을 지하실로 하여 불아궁을 꾸민 예이다.

여기에 온돌방이 집중적으로 나열되는 평면에서는 불아궁과 굴뚝의 위치가 방의 정반대쪽에 붙어야 하는 일도 자연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화재 때문에 지하벽체는 콘크리트조 또는 벽돌조 하였으며 지하실 천장은 즐대·메탈라스를 치고 회반죽 바름으로 하여 목조 마루밑을 막았다.



(그림 7) 지하실 불아궁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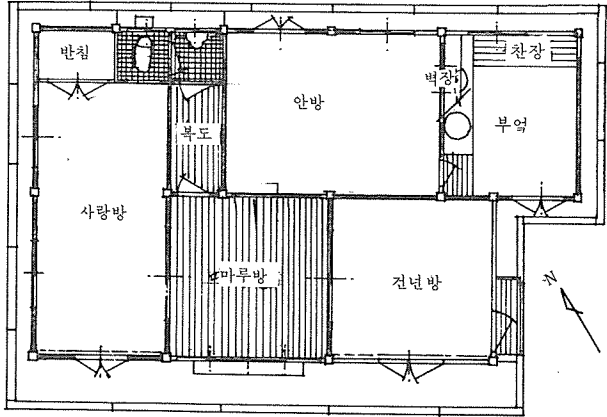
(4) 변소

변소는 소주택 집중식 평면에서는 대단히 불리하다. 옛부터 전하는 말에 변소의 위치나 또 위치변경에 많은 금기사항과 기피관념이 있었다. 이것은 미신적이든 과학적이던간에 이유있는 사실로서 향좌와 주위사정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량주택에서도 초기에는 변소는 따로 배치되는 것이 상례였다. 중류주택 30명 이상의 주택에서는 현관·현관홀·목욕실·반침·광등으로 격리되도록 배치하는 법등이 유리하지만 보다 확실한 것은 오물탱크를 대단히 크게 잡는데 있다. 수거식에서는 오물탱크 크가 클수록 악취가 덜나기 때문이다. 다음(그림 8)은 필자가 직접 지어 살던 집으로서 3·4년 후에 오물탱크를 확장하였더니 비교적 악취가 덜 나는 것을 체험하였다.

(5) 현관·목욕탕

대문간이나 중문간은 전통적 한옥에서는 유효하지만 집중식 평면에서는 현관이나 안현관으로 대체되고 아울러 현관홀(문간마루)이나 현관 앞 포오치 즉 우리말로 자비곳(差備所) 또는 자비간을 두었다. 또 목욕탕이 필요하게 되었다.

반침·벽장·다락등이 한국 주택의 부속실이었던 것이 오직 반침으로만 꾸며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장농을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게 되는 폐단도 생기는 하였으나 집 중심 평면에서는 뒷처마 끝을 이용하는 벽장등은 불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8) 짓집중식 소주택 평면도(건축면적14평)

(6) 부엌바닥

부엌바닥은 온돌방에 불을 때는 불아궁과 부뚜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방바닥보다 60cm이상 90cm 정도 낮아진다. 이 때문에 부엌과 온돌방 출입이 빈번한 부인은 피로가 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에 능률도 저하되었다. 이 문제는 장작이나 연탄을 때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이어서 현재까지도 일부에서는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난방용 보일러의 보급으로 완전 해소되게 된 것이다.

10. 간 단위

한칸 또는 한칸이란 한옥에서는 기둥 넷이 보와 도리로 둘러진 단위를 말하고 일인들이 한칸(一間)이란 6자 길이로 쟀 1평(坪)을 뜻한다.

고래로 주택의 기둥간 사이는 대소의 변천은 있었지만 전통적이거나 법제화 되어 보통 8~10자를 한칸 길이로 잡고 있다. 일본의 한칸이란 길이 척도로 쟀 면적을 간과 혼동하게 되었다. 12자에 16자되는 대청은 칸수로는 3칸이지만 평수로는 5.33평이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분양주택에서 기둥간사이를 7자, 6자등으로 작게 잡아 이것을 한칸이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 칸수를 적고 그 옆에 절대면적인 평수를 병기하여 그 착오를 깨우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칸의 평균 절대면적까지 제시한 일이 있다. 이와 같이 말의 뜻하는 것과 내용이 혼돈되는 곤욕을 느낀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11. 끝맺음

한국 주택이 발전 변화되어 온 자취와 그 연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앞으로의 진전 방향의 설정이 중요하다. 평면계획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면에서도 현대화 되는 과정상 큰 변화가 일고 재료상 공법상의 진전도 있어 이에 대한 일들은 후일로 미루면서 한옥의 장점이나 단점등을 펴는 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

(38 페이지의 連續)

体系性を 이룬 과정을 보면 주건물을 대지의 가장 요지에 배치하고 부속건물은 지형에 따라서 변화있게 배치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서 지형 즉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잘 이용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가람배치나 궁궐建築의 配置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民族 古有의 空間概念을 읽을 수 있는 촌락의 配置形成에서 전개되는 空間構成에서 自然과의 調和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러한 自然과의 調和思想이 서민 生活에도 깊숙히 스며든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結論的으로 韓國의 전통적인 空間計劃에 면면히 영향을 끼쳐온 정신은 自然과의 調和思想인 것이다. ■

(50 페이지의 連續)

이상의 方法은 비단 病院의 立地選定에만 利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事業의 立地選定에 應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러한 分析方法이 하나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있으며, 위의 方法은 극히 초보적인 方法에 지나지 않는다.

또 위의 方法에서도 여러가지 案을 導出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案이 同等한 效果를 거둔다면, 최후의 評價는 經營分析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어느 경우가 豫算의 節減을 꾀할 수 있는가 또는 收益을 最大로 올릴 수 있는가의 最終的이고 중요한 評價를 내리기 때문이다. 주어진 條件에서 目的을 最大 또는 最小로 하는 評價를 얻기 위하여 最近에 線型計劃 즉 linear programming이 脚光을 받게 된 것도 그러한 까닭이며 linear programming을 建築企圖에도 導入하면 合理的인 分析結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